

## 圖書費有感

李海英

過去 한 두차례 美國에 공부하려 갔을때 일이다. 넉넉치 못한 生活費속에서 틈틈이 책房에 들려 한 두권씩 책을 사모은 것이 도라올 때에는 郵便으로 부치느라고 골치를 앓기도 했다. 이러한 것은 外國에 留學을 갔든 대부분의 教職者가 경험했든 일이라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도 고생을 하면서 사모은 책들을 歸國後에 과연 몇卷이나 읽었는가 생각하면 부끄럽기 짹이 없어진다. 기껏해야 講義에 필요한 대목을 몇 페이지 읽고 나가든가 雜文을 쓸때 생각나면 몇군데 훑어보는 것이 고작이니 결국 사온 책들은 대부분 室內裝飾의 구실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 두권씩 책을 사 모으는 것을 보는 外國人們 가운데는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않아 있었다. 必要한 책은 學校圖書館에 가며는 언제나 읽을 수 있는 처지에서는 확실히 넉넉지도 못한 生活費속에서 책을 산다는 것이 이상스러울는지도 모른다. 구지 韓國의 實情을 또 大學圖書館의 딱한 事情을 說明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그럴때마다 默殺해 버리는 것이 例事였다. 同時에 그런일이 생각날때마다 室內裝飾의 구실을 하고있는 책들을 쳐다보면서 혼자 苦笑를 禁치 못한다.

教務處의 일을 맡고나서 부터 大學行政의 實情을 몸소 겪게 되니까, 平教授로 있을때 느끼지 못했던 것,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 관해서도 이러한 느낌은例外가 아니다. 한大學이 大學으로서의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 圖書館이 차지하는 位置가 어떠한 것인지는 새삼스럽게 再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大學의 機能이 時代의 变천과 社會의 变화에 발맞추어 變化하고 多元化되어감에 따

라 大學圖書館의 기능도 이와 步調를 같아 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當然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圖書館의 實情은 大學안의 無關心地帶로 放置된 채 그 原初的機能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숨김없는 事實일 것이다. 하기야 大學 自體가 社會와 政治의 無關心地帶였다는 것은 大學財政의 추이를 살펴보며는 一目瞭然하지만 圖書館의 경우 그것은 더욱 심했지만 했다. 그러나 反面 우리들自身도 反省할 餘地는 있다고 본다.

금년도 國庫에서 나오는 서울大學校의 圖書費는 約 1千 3百萬원이라고 記憶하고 있으며 이 額數는 數年來로 별 變化가 없든 것으로 알고 있다. 萬 3千名의 學生과 9百名가까운 教職員을 갖인 서울大學校의 圖書費로서는 外部에 내 놓기조차 창피한 額數이며 그 대폭적인 增額을 위해서는 따로 努力해야 할 문제지만 주어진 與件下에서 그나마의 돈이나마 우리들自身이 얼마나 効率的으로 利用해 왔는지는 또한 우리들自身이 反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地理的으로 각 單科大學이 여러곳에 分散되어 있다는 서울大學의 特殊事情때문에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각 단과대학 單位로 圖書分館이라는 것이 있다. 심한 경우에는 비스듬한 性格의 分館이同一キャンパス內에 둘 또는 그 이상씩 있는곳도 없지 않아 있다고 안다. 결국 千餘萬원의 國庫圖書費는 一定한 規準에 따라 中央圖書館을 위시해 이 數많은 分館에 分割되어 支給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各分館에 割當되는 額數는 작은곳은 十萬원 많이 나가는 分館이라야 三十萬원 정도라고 記憶한다. 千萬원이라는 그나마의 圖書費는 갈기갈기 조개져 實質的으로는 圖書費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만다. 事情을 더 惡化시키는 것은 分館相互間에 協調와 連絡이 別無狀態인데다 이것을 調節・統制하는 行政體系가 確立되어 있지 못하다는 事實이다.

만일 우리가 過去十年間 年平均 千萬원의 圖書費나마 計劃性있게 또 體系적으로 이것을 學生과 教授를 위한 圖書購買에 사용했던들 오늘날 1億원 어치의 圖書는 購買했을 것이 아닌가고 생각도 해본다. 문제는 지난일을 거울삼아 앞날을 構想하는데 있을 것이다. 서울大學校의 綜合化는 이 事實하나만 갖고서도 推進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지금부터 우리들自身의 마

음의 變化가 있어야 한다. 建物의 綜合化가 되였다고 마음의 統合이 自動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책을 個人이 구비할 수도 없고 또 구비할 必要是 없다. 그러나 大學圖書館에 가면는 必要한 책은 언제나 閱覽할 수는 있어야 한다.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은 마땅히 그러한 구실을 하기 위해 存在하는 것이며 또 반드시 그리 되어야만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교무처장)